

복 지 광 세

성경에서 배우는
사회사업

성경에서 사회사업을 배우고 성찰하고 다듬어 가는 이야기

2011년 9월 1일

servant@welfare.or.kr

이 책의 본문용지 '이플러스'는 사용 후 고지 100% 재생지입니다. 표지용지 '앙코르'는 사용 전 고지 55%이고 염소계 표백제와 형광염료를 쓰지 않은 재생지입니다.

서문	1	16. 권리	122
답는 일의 중요성	2	17. 인자와 공의	126
1. 장래에 대비하는 일	2	18. 사랑과 지식	128
2.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5	19. 하나는 이리하고 하나는 저리하다	132
3. 수치맞는 사업	6	20.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자	137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8	21. 한 가지만이라도	144
5. 율법의 강령	14	22. 정체성과 본분에 충실하게	145
6. 하나님의 관심	15	23. 혼자 할 수 없습니다	155
7. 예수님께서 하신 일	20	24. 때때로 쉬자	168
8.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	21	25. 안식일	174
9.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22	26. 어려울 때	179
10. 구제와 선교의 관계	23	27. 원수	202
11. 사회사업 동기	29	28. 저주받을 때	210
12. 구설의 다툼, 사람의 평가	216	29.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말자	223
13.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말자	223	3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230
14.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31.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15.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언어	239
16.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1. 언어의 비결	239
17.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2. 강의, 상담	243
18.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3. 축복	245
19.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4. 험담	247
20.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5. 의혹, 소문	248
21.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6. 비밀	250
22.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7. 비판	251
23.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8. 책망	253
24.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9. 맹세	264
25.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10. 때가 된 후에 말하자	270
26.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11. 말을 아끼자.	271
27.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12. 우는 소리 하지 말자	272
28.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29.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30.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31.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32. 사업의 평가와 보고	237		

13. 성내지 말자	273	물질	293
14. 원망, 불평	274	1.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자	293
15. 부드럽게	275	2. 물질에 마음 두지 말자	295
16. 기타	276	3. 소유의 폐단	297
17. 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278	4. 청부	299
재원	280	5. 저축	300
1.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280	6. 흉년 대비책	302
2. 사회사업가의 기업	281	복	303
3. 여호와 이레	282	소원·유언	305
4. 사회사업 기금	283	교회사회사업	306
5. 재원의 정당성	288		

서문

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는 데 유익한 책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사업에 꼭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광세는 이처럼 성경에서 사회사업을 배우고 성찰하고 다듬고 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민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 책망과 격려, 부담과 기쁨, 좌절과 회복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회사업에 적용하기도 하고 사회사업에서 성경을 상고하기도 하면서 깨닫는 바를 조금씩 정리해 왔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요14:26) 관주를 따라 관련 구절을 참조하거나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거나 문맥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는 문외한이고 따로 참조한 책도 없으니 이 점 헤아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때마다 일마다 적당한 말씀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보내신 일에 형통하기를(사55:11) 기도합니다.

돕는 일의 중요성

1. 장래에 대비하는 일

주님 다시 오실 때 복 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분하시되 약자에 대한 행적을 근거로 심판하실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마25:31~4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의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라 하시되 그들은 작은 자가 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거나 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아낌없이 베푸는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딤편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심판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지금 긍휼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약2:12~13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배웠거니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의 말씀들을 밝히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에 담아둡니다. 록2:50~51

심판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장래 그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 따라 선한 사업에 힘쓰고 싶습니다.

언제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시41:1~2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전11:1~2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체하고 돕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울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하십니다.

잠21: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28:27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대조 :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히13:5) 하셨고,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8:38~39) 하셨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마6:34) 하셨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리라(렘17:7~8) 하셨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눅6:34) 하셨습니다.

2.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눅12:33~34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19:21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마6:19~21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늘에서도 보화가 소용이 있다는 말씀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할 안전한 금고라는 말씀인지, 그 뜻을 밝히 알지 못합니다.

땅의 재물을 인한 수고와 염려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무서워할 필요 없고, 쓰지 못하고 죽는다 애석해할 필요 없고, 재산 분쟁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도둑 맞지 않을까, 녹슬거나 좀먹지 않을까, 허비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고 마음도 하늘에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니 세상에 마음 뺏길 일은 멀어질 테고, 땅에 의지할 재물이 없어 하늘 아버지께 마음 두고 살 테니 그것이 곧 참된 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3. 수지맞는 사업

하나님께서 후하게 보상하시는 일입니다. 부하게 되고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지고 잘 되고 복을 받는 일입니다.

잠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 후하게 보상하신다. 쉬운성경¹⁾

잠11:24~25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112: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잠22: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마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 헛된 수고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가 이르매 정녕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 눅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킹제임스 흠정역

시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58:6~11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히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까?

다만,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11:5~6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보다 더 영예로운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믿음으로써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미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대하여 선한 것, 즉 ①자신을 지켜 의롭게 행하며 ②이웃을 긍휼히 사랑하며 ③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 경건한 삶

약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행10:1~2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 4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3) 주를 공경하는 행위

잠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1:1) - 욥의 행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욥29:11~13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 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15-16.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새번역

계속하여 욥기 31장에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변론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 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체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 주지 않은 적도 없다. 욥기 31:13, 16-20, 32 새번역

4) 지혜의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약3: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약3:17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쉬운성경

요일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3: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5) 지혜자의 마음, 현숙한 사람의 행위

전7:24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 혼인집에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주례사를 잘 들으면 결혼생활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공부가 됩니다.

잠31:20 (현숙한 여인) 그녀는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말성경

현숙한 여인, 다비다라 하는 제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행9:36~42 읍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읍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일이 온 읍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새번역

다비다는 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병들어 죽자 모든 과부가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더구나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만 돌린 그녀를 어찌 복되다 아니하겠습니까?

6) 하나님을 공경(경외)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치장

잠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치장은 「선행」이라고 하십니다.

딤후2:9~10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를 공경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더욱 귀하고 복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의 속성이 바로 구제·선행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제·선행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를 공경하는 행위이며, 경건한 삶이요, 지혜자의 마음을 끄는 일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5. 율법의 강령

한 율법사가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여쭙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쉬운 성경” 하셨습니다.

마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완성

롬13:8~10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6. 하나님의 관심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게 하신 말씀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도 없으니, 이로써 보건대 약자를 돕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22:22~24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22:25~27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레19:9~10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19:13~14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25:35~37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신 10:17~1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14:28~29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15:7~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15:12~14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신16:10~11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24:10~13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2)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가난한 사람과 함께 즐기거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것 같습니다.

예9: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인을 자유케 하신 날입니다. 모르드개는 유다 백성에게 글을 보내어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하였습니니다.

신24:14~15 끈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신24: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24:19~21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시68:5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잠3:27~28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31:8~9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사1:16~17 (헛된 제물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10:2~3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느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겔16: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가진 게 많아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궁핍한 사람을 도와 주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거나 학대하는 죄를 엄히 다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까닭은 크게 두어 가지인데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악을 행하는 것과 약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여쭙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11: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8.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

마10:7~8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①복음 전파와 ②구제입니다. 약한 자를 돕되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에게 보낼 때에 부탁한 건 오직 한 가지, 바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갈2:9~10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9.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머리도 발도 눈도 손도 모두 같은 몸에 속한 것입니다. 지체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각각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고전12:14~27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시다. 고전12:4~6

그럼에도 성경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전12:28~31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 걸쳐 각양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결론적으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있음을 밝히셨으니 곧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는 사도나 교사나 병 고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무 일에도지, 누구나 마땅히 사모해야 할 은사요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길이지만, 사회사업가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구제의 핵심이요 구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10. 구제와 선교의 관계

①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관심사, ②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 ③ 신약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 - 그것은 바로 구원과 구제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약자를 돕는 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주종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아도, 구제는 구제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구제를 수단화하면 오히려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구제 대상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항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복지사업에서 종교성 때문에 종종 갈등을 빚습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서조차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애매한 비난이라고 무시해버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후원금과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이용자·직원에게 교회 출석이나 종교행위를 요구한다면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택의 여지없이 이곳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종교로써 차별하거나 사실상 종교를 강요한다면 역시 반감과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되 선교를 위해서 하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독교인에게만 하라 하지도 않습니다.

대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6:10

마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딱한 사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실 때에도(마20:31~34),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막1:40~43),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11:33~35)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눅7:11~17) '불쌍히 여기사' 그리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었습니다.(눅10:33~34)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연민과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심도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장애인을 도우심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 꼭 선교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제는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제 그 자체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구제는 선교의 자연스러운 결과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구제 많이 한 사람이라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 역시 구제의 목적이 아니며 구제의 자연스러운 결과도 아닙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제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쓰이지 않는다 해도 구제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에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곧 소명이요 성직이며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프란시스의 기도문에 곡을 붙인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도 '세상과 사람을 대하여는' 이 기도문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건 물론이고 듣기조차 꺼립니다.

사랑과 용서, 일치와 믿음, 진리와 희망, 광명과 기쁨을 심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귀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랑의 천사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속삭임입니다.

착한 행위로써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 얻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행이 영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평화의 도구로 봉사하는 게 영생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심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은 오히려 진리가 있는 곳에 오류를 심는 기도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이 노래의 끝에서 두 번째 줄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더 나쁩니다.

기존의 가사는 구원에 관한 한 완전히 다른 종교의 주장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섬기고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기 공로 자기 의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이는 이단이 아니라 이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하며, ~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로 바꾼 가사는 그야말로 이단 사설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믿음과 진리와 희망과 광명과 기쁨을 심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믿어야, 그것도 온전히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주장은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며 거기에 더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주장, 믿음에 자기 공로를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단의 구원관입니다.

고후 11:13~15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4:4~8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갈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대속은 충분하고 완전하여, 사람이 어떤 대가도 더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 되게 하여 사람으로 사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셨으므로, 또한 율법의 행위로써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결코 쉽거나 값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찢리고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건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모욕, 침 뱉음을 받으며 가시에 머리가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린 채로 목마르다 하시고, 허리에 창구멍이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건 실로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 구원의 방법과 목적 :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엡2:8~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사회사업 동기

혹 사회사업도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냐고 비난하거나 자책합니다. 그러나 이는 각박하기가 결벽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행까지도 그 동기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세상에 누가 감히 남을 도우려 하겠습니까?

순수한 뜻으로 남을 돕는 것 같아도 자신의 만족에 귀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 근본 동기가 「자기만족」에 닿지 않는 인간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하셨습니다.(전3:12)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으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고 하셨습니다.(전3:22)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전3:13)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전5:18)

우리의 일 사회사업으로써 낙을 누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답고 선한 복이니 이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결국 사회사업을 하는 동기가 자기 만족에 있다는 이유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도 만족할 수 있다면 이는 마땅히 서로 기뻐할 일이지 결코 꺼리거나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설사 얻을 걸 바라고 구제할지라도, 혹은 구제하고서 얻을 걸 바랄지라도,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면 너무 각박하게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한 동기 곧 시기와 경쟁심,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회사업할지라도 그로써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 이는 기뻐할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빌1:15~18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쉬운성경

대조 :

삼상16:7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후9:7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제는 장래에 대비하는 일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요, 수치 맞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런 보상을 바람은 불순한 동기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니 쓸데없는 일일까요?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데 있더니 이 또한 불순한 동기일까요? 마6:1~4

돕는 방법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구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자유 의지를 주시고 또한 함께 살도록 지으셨으니, 우리도 그 인격과 관계를 살려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구하고 감사하되 또한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돕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1.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자

시37:3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개역한글

사회사업 최고의 방법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 ① 여호와께서 이루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 ②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③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 ④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 ⑥ 앞서 행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⑦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 여호와께서 이루시도록 맡기고 의지하자

잠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37:4~6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³⁾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이는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저의 길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하셨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명령과 약속에 의지하여 이 일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니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기를 바라고⁵⁾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3) 느8:10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4) 렘33:2~3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5)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통의 땅에서 어둠을 걷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실 일을 말씀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사9:1-7

앗수르 왕을 벌하시고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회복하시겠다 하실 때 에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왕하19:31

한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책임과 의지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6)

그러나 제 염려와 수고를 그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7) 저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습니다.8)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연결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최선의 자유 의지, 수고 중의 수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도록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 골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7) 출 14:13~1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됴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대하20:15,17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8) 슄4:6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 지도하시는 분을 인정하자

사람이 자기 앞길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잠20: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렘10: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걸음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시25: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잠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48: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인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신뢰를 표현합니다.

“제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저의 길을 알지 못하옵고 다만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합니다. 제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이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잠19:21)”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시23:3, 시31:3)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시143:8). 택할 길을 가르치소서.”

먼 길을 떠날 때 기도에 담는 말씀

창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제계도 그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3) 여호와께 여쭙자

삼상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⁹⁾

삼상23:1~5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¹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9)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지방 성읍인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여 다윗을 신임했으므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도 함께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 왕을 따라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는데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그가 전장에서 자기들의 대적이 될까 하여 그의 참전을 반대하므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전했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노하여 성읍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위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치고 잃었던 것을 모두 도로 찾아왔습니다.

10)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삼상 22:5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삼상23:8~13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¹¹⁾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피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삼하2:1 그 후에¹²⁾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

11)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독 안에 든 쥐다.” 하며 다윗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다윗이 이 음모를 알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입니다.

12)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의 한 성읍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 출전했다가 블레셋 다른 수령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 왕도 전사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블레셋 땅의 지방 성읍인 시글락에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좇아 헤브론으로 갔고 그곳

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
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삼하5:18, 19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지라.13)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
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삼하5:22~24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
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
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
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대하18:4 (유다 왕)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

삿1:1~2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
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삿20: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
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13) 다윗이 유다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얼마 후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는 이야기입니다.

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10:13~14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14)

사30: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15)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개역한글

14) 사울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뿐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십니다.

비교 :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쓰여 있고, 또한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죽게 될 이유는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죄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5)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앗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왕하17:4

앗수르 왕 산헤립이 남쪽 유다를 치러 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쥘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왕하18:21

② 여쭙고 잘 듣자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 일을 찾을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되 마음의 소원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들겠사오니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고 기록합니다.¹⁶⁾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긴 그 소원,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6) 소원은 기도 중에 생기기도 하고,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생기기도 하고, 책을 읽을 때 생기기도 하고, 현장을 두루 다니며 살피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게 사회사업은 기도와 책과 발바닥을 통해 옵니다.

사30:20~21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혹 치우치거나 빗나가려 할 때 성령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어 버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니 더욱 - 제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겠지만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바른 길을 알려 주시므로 결국 선을 이룰 것입니다.¹⁷⁾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붙드시니 아주 옆드러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¹⁸⁾ 주께서 소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17)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8) 시37:23~24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후4:8~9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4)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기를 바라자

시32: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이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합니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갈 길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마음에 형상화되어 나를 울립니다.¹⁹⁾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목하여 훈계하소서.”

19) 습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 박중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취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5) 지혜를 구하자

약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자주,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지혜가 부족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명령하셨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²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소서. 빌2:13”

20)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①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사회사업가에게도 매우 절실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 복잡한 문제와 끝없는 욕구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왕상3:7~9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였고, 그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왕상 4:29~30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사회사업가로 세우셨으나 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은 많고 문제와 욕구는 끝이 없으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②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의 지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사 사회사업하게 하셨는데, 성경에는 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의 지혜에 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성막일꾼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례,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사례를 보며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35:30~36: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단1: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단2: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일꾼으로 세우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감동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어, 저에게 맡기신 사회사업의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케 하소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사회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명철과 재주를 주소서. 지혜와 권능이 주께 있으므로 주를 바라고 찬양하나이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욥32:7-9 젊은 사람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32:6~9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번역

시119:97~100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렵니다.

6) 앞서 행하시기를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고 순직히 만나게 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르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어찌 알고 택하겠습니까? 또한 여자가 따라 오고자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난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시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여차히 알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의 종이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²¹⁾ 제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순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를 감동시키시어 저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21) 그 사자를 먼저 보내어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미2:12~13 야곱아 내가 만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만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언젠가 캠프를 준비하던 중에 여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 곧 사회복지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들을 모으시고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며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자

①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생활 하던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남은 사람들은 큰 환란을 만나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고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왕에게 허락과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느1:11

그리고 왕에게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지방 총독들이 저의 통행을 허락하도록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명하여 제게 목재를 주게 해 주십시오.” 느2:5~8

적국 페르시아의 왕이 이런 요구를 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친서를 써 주고, 장교들과 기병대를 보내어 호위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② 에스라

스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생활 할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왕은 먼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은금을 가져가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라.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왕의 창고에서 그것을 받아 가라.”

왕은 또한 강 서편 모든 창고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주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마라.”고 엄명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적국의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스7:27-28

③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 요셉

단1:8~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출12:35~36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창39:20~23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들을 읽은 후로 저도 남에게 협조·도움을 구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저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④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사회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관계와 역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감동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의욕이 있고 사기가 살아야 합니다.

사업 내용, 준비 정도, 자원, 능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긍정적 기운, 좋은 관계와 역동, 애정과 열정, 높은 사기, 바로 이런 겁니다.

비록 내용이 좀 부실해도, 잘 준비하지 못했어도,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해도, 이런 게 있으면 잘될 수 있습니다. 잘됩니다. 저는 경험으로써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무슨 기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조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린 아이라고 더 쉬운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어른이라고 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사랑과 감동으로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관계와 역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강의할 때에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8) 넉넉한 자원과 좋은 여건에 마음 두지 말자

잠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62:10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더하면 부지불식간에 제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제 힘으로 하려 들기 쉽습니다. 자원이 많고 동참·협력하는 사람이 많고 상황이 좋으면 보통은 그것에 마음을 두기 쉽습니다.

위험합니다.

조건이 좋아도, 준비를 잘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허사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부한 경험²²⁾이나 넉넉한 자원이거나 좋은 여건 그 자체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분만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62: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44: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가 의지한 것은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은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시44:6~8 세번역

22) 경험을 의지하지 말자. 익숙한 강의를 반복할 때에 그리고 캠프, 순례와 같이 이미 성공 경험이 있는 일을 또 하게 될 때에 매우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① 다윗의 실수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백성 칠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하나님보다도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죄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플리앗과 싸우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상17:45~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고 담대히 외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많은 군사가 있어야 이길 것이라 생각한 걸까요? 인구조사, 즉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조사하니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다윗 스스로 구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고(삼하24:1)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역대상 21장)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하여 다윗의 죄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 것 같은데 다윗은 스스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 하옵나니 중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것일까? 어떤 점이 죄가 되었다는 말일까? 성경을 살펴보았으나 이에 관해 직접 언급한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더하게 해 주실 수 있는데도²³⁾ 그 하나님만 오로지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 일이 제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 더욱 조심합니다.

23)삼하24:3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대상21:3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② 많음을 의지하지 말자

호10:13 너희는 악을 받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사31:1~3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썸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시33:16~17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자원으로 성공한 사회사업이 없으며, 사회사업가가 능력이 많아도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²⁴⁾

사회사업은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24) 고전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③ 초지일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의뢰하자

골리앗과 싸우던 때의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갈3: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을 의뢰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도 부지불식간에 제가 일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려워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시작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갈 때, 초심을 잃어버리고 육체 곧 제 힘과 노력으로 마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며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때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까요.

④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경계하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맞서 싸우겠다고 기드온을 좇은 군사가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이겼다고 자궁하지 못하도록 3백 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삿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신8:12~18,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⑤ 사도 바울의 모범

바울은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빌3:4~6 쉬운성경

또한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²⁵⁾

그러나 바울은 육체 즉 그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준비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였습니다.

빌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5) 행22: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행5: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오히려 그 준비된 것들을 해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3:7~9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에도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이라면 그는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의 말로써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써 하기를 원했습니다.

고전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9) 준비를 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맡기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했으니 이 일은 잘될 거야.” 한다면 그것은 이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준비 여하에 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으니 이 일은 안될 거야.” 하고 체념하거나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여하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을 때에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는지라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만 완전히 서기를 바라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잠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16: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16:3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21: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이루소서.” 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족하고 약할 때에 더 잘되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고후12:9~10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뿐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때라도, 역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렘14: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 9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는 일

히스기야가 유다 왕에 즉위하자 곧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일을 정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 일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갑자기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하29:34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대하29:36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러므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닥친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 걱정일랑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②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그렇다고 잘 준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잘되기를 기도하면 염치없는 짓일까요?

진인사대천명 혹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좋은 성적을 얻을까? 그저 실수하지 않고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구할 뿐이라'고 합니다. 평소 공부하고 준비한 것만 '심은 것'으로 보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한 게 없어도 믿음을 심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의 칼과 활로 하지 아니한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지 않은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셨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셨으며,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하셨습니다.

시44:2~3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수24: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다 하셨느니라.

요4:37~38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신6:10~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우리의 일을 부탁하는 것, 그것은 염치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넉넉한 자원과 좋은 여건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되고,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고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준비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떤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10) 그러하여도 여호와를 의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때로는 곤경에 빠집니다. 믿음의 방법이 실패한 것 같고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대적과 위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나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 것입니다.

시31:11~14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시44:13~17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히10:38~39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 친구의 대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단3:16~1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고백인지요?

사회사업은 복잡 다양한 변수와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검증할 수 없고 일반화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무수한 원망과 비방을 받게 됩니다. 진실하게 섬기는데 오히려 배신과 핍박과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재물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은 언제 그만 두게 될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사업 현실에서 한결같이 되뇌는 말이 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만 바라고,
그러하여도 여호와만 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만 바라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회사업 최고의 방법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2. 감사로써 행하자

1)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자

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열정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잘 해 보려는데 걱정되고 애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지하게 되는 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명령과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찌해야 좋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 이 평강은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벧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 잊지 말고 감사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걸까?

그때 제게 와 닿았던 교훈은

기도한 게 이룬 후에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²⁶⁾에 관계없이,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생각은 그 후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루기 전에 기도하는 만큼의 분량이나 그 간절함에는 못 미치지만, 잠깐이라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즉시 감사하고, 돌아오면서 감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고, 다음 날 새벽에 또 감사하고, 주일에 다시 감사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여러 차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일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26)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적당한 때에 진정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터이니 감사합니다. 복 주실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인지 모릅니다.

신16:14~15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여준 모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려 오라” 하니, 늙은 종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여차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즉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창24:26~27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② 다니엘의 감사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꿈을 모르는데 어찌 해석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서는 꿈과 해석을 알려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단2:23 나의 열조의 하나님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
나이다.

③ 나병 환자 한 사람의 감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소리를 높여 간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감사한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아홉 사람은 부끄러운 책망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눅17:16~19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④ 히스기야

내 능력과 수고로써 이룬 것처럼 하기 쉽습니다.

일을 해냈다는 기쁨과 성취감에 도취하여,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애쓰고 수고했는지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거나 대견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태도를 망각이나 부주의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 교만의 죄로 다루어 엄히 징계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²⁷⁾고 하셨으니 거울삼아 조심해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의 전을 깨끗케 하고 산당을 헐어 버리고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역대하 31장 20~21절에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를 낮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왕하 20:1~11

27) 벰전 5:5~6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때에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 주었습니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예언입니다. 왜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이곳 열왕기하 20장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역대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하32:22~25 이처럼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 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 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새번역

3) 범사에 감사하자

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엡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마움을 느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 행위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사함은 우선일까요? 참된 감사가 아닐까요?

억지로 감사하지 않고, 고마움을 느낄 때, 거짓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감사해야 할까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는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적 노력이며,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상황이 나쁠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짜증스러울 때, 거절당할 때, 애매히 고난 당할 때, 고마운 마음은커녕 고통과 불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부터 드립니다.

① 감사는 의지적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 으되,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 만 진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와의 명령을 이루지 아 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 엘을 보내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을 남긴 것이라.” 하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제사를 그 목 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邪術)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邪神)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 음이라.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상황을 가려서 감사하라 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거짓없이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고마움을 느낄 때까지 감사를 유보하는 건 마치 사울의 변명과 같습니다. 나중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보다 바로 지금,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떠한 상관 없이, 조건이 어떠한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려 합니다.

②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3:11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새 번역

모든 일,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게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약조건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²⁸⁾ 이 믿음이 있으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28) 창50:20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새번역 빌1:12~14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시30:11~12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에9:22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선하시며 그 사랑 변함 없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스물 여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감사하는 이것은 진심입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시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69:30~3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기에 마음이 어떠한 상관없이 조건이 어떠한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 감사는 사회사업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딤편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회사업은 이처럼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먼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소원하게 하
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실마리를 얻습니다.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할 때에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여쭙고 응답을 기다리며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
신 뜻을 위하여 제게 주시는 소원, 마음에 떠오르는 그 착상을 받아
쓰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때, 할 일과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회사업의 마스터키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에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함으로써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회사업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3. 당사자의 인격과 관계를 살려 돕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속성을 부여하셨으니

첫째는 자유 의지요, 둘째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2:16~17

②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2:18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사람살이의 법도를 세우시는 중에, 이웃을 도울 때 삼가거나 배려할 점을 정하셨으니

첫째는 당사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24:10~11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레25:35~36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1) 자주하는 인격

교회의 구제·봉사는 당사자의 인격에 대한 성찰과 배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당사자의 「자유 의지」를 중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의무, 교회의 역할, 전도 및 교회 성장 전략, 이렇게 돕는 쪽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당사자 쪽의 인격·품위·자존심·체면 따위(?)는 깊이 생각지 않는 듯합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대상화합니다. 당사자의 삶인데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대신 하기도 합니다. 빛나는 쪽은 기독교인의 선행이요 교회의 구제 사역입니다. 당사자의 삶은 오히려 구차해 보입니다.

당사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유의지로써 자주하는 인격적 품위, 이것을 지키고 살려야 합니다.

남의 선행에 종속하여 자기 삶에서조차 소외되는 객체,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설프고 힘들어도 자기 삶, 자기 복지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이라도 자기 책임 하에 교섭·수용, 선택·통제, 활용하는 주체, 책임 있게 반응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당사자 본인의 삶, 이렇게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사자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사람의 복지이니, 무슨 도움이든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루도록 부탁하고 당사자가 이룬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2) 더불어 사는 관계

교회의 구제·봉사는, 이웃하여 함께 살려는 사회성, 그 「공생적 관계와 소통」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혹은 열등한 존재로 분류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듯 보이는 곳에 따로 놓고서, 혹은 복지 별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닌 그들로 대상화해 놓고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특별한 대상으로 설정하여 따로 떼어 도우면, 우리 곁에 함께 사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회적 태도 그 관계를 단절·왜곡하거나 빈약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을 돕되, 함께 살게 해야 합니다. 함께 살게 하되, 지역사회 안에 함께 사는 물리적 공생뿐 아니라 또한 관계와 소통이 살아 있는 사회적 공생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제·봉사를 위한 특별하고 일시적인 관계보다 당사자 쪽의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관계를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와야 합니다. 가급적 당사자와 함께 당사자의 가족·친지·동료·이웃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자연스러운 사람살이 그 공생적 관계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돕되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레25:35~36” 하신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인간」으로 살게 하신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3) 인문학과의 대조

자율과 연대, 개인의 독립·자율과 사람사이의 관계·소통, 이것이 인문학의 주제라고 합니다. 사회사업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① 자율은 귀하나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자, 당사자로 하여금 복지를 이루게 돕자, 당사자가 선택·통제하는 당사자의 삶이 되게 하자, 사회사업가로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뜻대로 사는 걸 매우 꺼립니다. 하나님께 종속하고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의 삶으로 자주께 하기를 힘쓰나 신자로서는 제가 삶의 주인 되기를 원치 않는 까닭에, 조심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② 사람 사이 관계와 소통,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소통,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관계·소통 - 사회사업가로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살려 돕자 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소통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소통보다 사람과의 관계·소통에 더 힘쓰고 바라고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계합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소통 살리기를 힘쓰나 신자로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까닭에, 조심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③ 인문학에 신중해지는 이유

어설픈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을 왜곡·오도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유행처럼 일어났으니 그렇게 꺼지지 않을까 지레 부끄럽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성공·행복 따위의 수단·방법처럼 보게 될까 조심스럽고, 인문학 활동을 사업실적이나 명예나 이익의 재료로 치부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혹 인본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2010. 10. 22

④ 인문학은 선악과? 기독교 신앙은 미련한 것?

신자에게는 인문 지성이 선악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문 지성은 종종 기독교 신앙을 미련한 것이나 불합리한 교조주의로 치부합니다. 이러므로 자칫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창3:6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고전1:18~25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

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시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롬9:18~20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고전3:19~20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골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4) 약자의 인격

사회 약자, 소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을 뵈옵는다 하셨습니다. 마18:10 하나님이 그의 상전이요 엠6:9 그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라 하셨습니다. 시68:5 그 사람에게 한 게 곧 주께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25:40

이런 사람을 삼가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거니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다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사람다움을 살려 도와야 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53:1~3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천시하는 이를, 약자를, 나는 귀하게 대했는가? 나도 덩달아 혹은 내가 먼저, 내 스스로 괘시하지 않았는가? 두렵습니다.

소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격이 있음을, 그의 상전 그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니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담아 둡니다.

더욱 誠意·正心하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겠다 생각합니다.

5) 차별하지 말자

약2:1~4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약2: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약자를 차별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외모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은연중 홀대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는지, 언행과 심사를 삼가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이런 사람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요 하셨습니다. 신10:18, 삼상16:7

보통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라도 약자에게는 오해와 상처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약자에게는 더욱 삼가야 합니다.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더욱 중히 해야 합니다. 더욱 귀하게, 더욱 인격적으로, 더욱 공손히 대해야 합니다.

4. 강점 관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탐지하려고 열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 중 열 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연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 문제를 부각한 것입니다.

다른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강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강점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얼마나 불리한 악조건인지에 매몰 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상대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폴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적장 폴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폴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폴리앗을 무시했습니다. 문제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가나안의 장대한 거민, 견고한 여리고 성, 강한 골리앗, 위협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니, 해를 두려워 할 게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요인에만 지나치게 마음 쓰며 그것만 가지고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강점·기회)로써 부정적 요소(위협·약점)를 무력화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소돔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창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18:32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렘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문제 비우기와 장점 채우기

갈5:16~18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생각나고 없애려 할수록 더 살아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창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마12:43~45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문제를 비우면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옵니다. 옛 문제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자꾸만 문제를 보고 문제를 들먹이고 문제와 싸우려 드는 사람에게는 공교롭게도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문제 이어 들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문제 비우기는 '우물이나 모래 웅덩이에서 물 퍼내기'와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향산적 바탕

요15:4~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렘17:7~8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칭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와 가뭄을 피하려들기보다, 더위와 가뭄을 해소하려들기보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하면 더위나 가뭄도 나무와 열매에 유익할지 모릅니다.

향산적 바탕에 뿌리를 내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마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필요, 그 하나하나 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일일이 열거하여 빠짐없이 다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

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뺏침 같이, 근본에 잇대어 향산적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온갖 문제가 끝없이 잇따를 것입니다. 어찌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사업에도 같은 논리와 믿음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상징되는 복지 서비스, 각양 문제와 필요 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6. 부작용 없는 항산

앗수르가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강한 기병과 많은 전차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찢려 들어가 점점 더 비굴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빠져드는 높이요 죄어드는 족쇄였습니다.

사30: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사31:1~3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겔29:6~7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이스라엘 족속)이 너(애굽)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무릇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베푼 계약은 그 실상 혹은 결국이 이러합니다. 혹 눈앞의 곤경은 벗어날지라도 항산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니 그 나중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입니다. 애굽의 물은 복통과 질병이 잇따르는 썩은 물입니다. 무릇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항산은커녕 당장 마실 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 곧 화가 있으려니와 이미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입니다.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8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19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단순한 실천의 비결

사30:15~16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 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적이 쫓아오니 말 타고 도망하는 게 인위요, 빠른 말을 타는 게 사람의 꾀입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자가 빠르면 쫓는 자도 빠릅니다.

이와 같이 인위의 꾀를 의지하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의 늪, 자승자박,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이 상책입니다.

세상 유행·풍조를 쫓아가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의 비결입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전문가주의는 자연력 대신 인위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으로써 대응하려 합니다. 문제와 욕구가 쫓아오면 더욱 빠른 말 - 더욱 전문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타려 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서비스가 전문화하는 만큼 문제와 욕구도 복잡해집니다. 한계효용은 줄어들고 내성은 더욱 커집니다. 제도와 서비스가 고도화하는 만큼 부작용과 역기능도 고도화합니다. 제도와 서비스가 뛰어가면 문제와 욕구는 날아갑니다. 제도와 서비스가 날아가면 내성과 욕심은 그 위에 타고 갑니다.

이와 같은 인위의 피로써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자연력을 살려 복지를 이루는 것, 그 저 마땅한 바를 좇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고 평범한 일상에 다가가는 것, 자연스러운 사람살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실천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평안하고도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부작용 없는 향산입니다.

8. 욕구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면 다 좋다는 식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근본, 본연, 본질, 역사, 바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 자신의 이상과 철학, 정체성과 핵심 사명과 역량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 가치에 반하는 욕구를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욕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20:20~28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사자의 욕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②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처럼 정체성, 사명, 권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공동체의 덕, 사람살이, 공생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④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처럼 사회사업가 자신이 마땅히 여기는 바가 있으니 당사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독선과 아집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부화뇌동할 수는 없습니다. 계몽하려들거나 가르치려드는 듯한 태도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아는 것이나 믿는 것과 다르게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출14: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민11:18~20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닳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시106:13~15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약4: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마16:21~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9. 목표

고전9:26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빌3: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회사업도 이와 같이 향방과 쫓대를 두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마땅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목표,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가능하게 해 주는 쫓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쫓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달음질할 방향을, 처야 할 대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겠지만 또한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41쪽 참조}

목표를 세우되 '주의 뜻이면' 하리라 할 것입니다.

약4:13~16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사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 하셨습니다. 대하 6: 7~9

대상28:2~3 나는 여호와와 언약케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세운 목표는 좋은 것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우더라도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리라.” 할 것입니다.

나의 목표·지향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경쟁	공생
넓은 문 평탄한 길 높은 자리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
영광	십자가
감탄케 하는 일	감동을 주는 일
성공, 행복	가치, 선함, 의의
명예와 지위	無名無位
풍요로운 삶	소박하고 단순한 삶
지배	섬김
자본주의의 노예	자치, 자율, 자유
안락한 생활	생태적 삶

10. 선한 청지기같이 행하자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딤후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업은 그것으로써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요, 또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 직업을 성직으로 여겨 선한 청지기같이 성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골1:29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움 속이나 말 아래의 빛이라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가마니나 항아리 속의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자기 직업을 교회 일에 비하여 부업으로 여기거나,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 일로 바쁘게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움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걸이 위에 두어야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소금 또한 가마니나 항아리에서 꺼내어 세상에 뿌리고 녹여야만 부패를 막고 맛을 낼 수 있는 법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전4:2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잠22: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전9: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골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벧전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교회 일에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구제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사회사업가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직업 사회사업에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11. 잘 준비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잘 준비하고 그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빛과 소금 역할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회복지 전공자 중에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전공 공부, 실무 준비는 소홀히 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각기 맡은 직업을 통해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직업을 위해 잘 준비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전무해야 합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옛새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직업에서 유능하게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직업 세계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사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소명 의식 성직 의식을 갖고 더욱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을 택하여 구제 업무를 맡겼습니다.

행6:1~6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

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십시오.

선교사나 목사가 그 직무에 어떻게 전념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사회복지 대학생들과 실천가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직분이 선교사나 목사의 직분보다 덜 중요합니까?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라도 모두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선교사나 사회사업가나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사업가도 그 직업을 거룩한 소명으로 받되 특별히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전무해야 합니다.

롬12:4~8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곧 사회사업에 온전히 힘써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직업은 전념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식 없는 도움은 선치 못하며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롬10:2~3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는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더러는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해치고, 더러는 복지사업 세우느라 당사자의 삶과 이웃 간의 사람살이를 대신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식을 좇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만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이며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는 채, 자신의 필요에 속고 자신의 최선에 만족하며 자기 이름만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뿌듯하고 사람들도 칭찬하나, 받는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잘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 나오면 사회사업가로서 합당치 않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회사업가는 더욱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빌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되 지식과 총명으로써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12.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로 가자

마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막10:42~45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눅14:7~11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20: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명문대 졸업생일수록 남들보다 더 어려운 곳에 헌신해야 하거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낮아져야 하거늘,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공부한답시고 불평등이니 재분배니 운운하면서도 제몫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학교 다닌 자가, 그는 명예를 가졌고 이미 많은 혜택을 누렸거늘, 사회에 나와서도 남보다 더 좋은 자리와 더 많은 보수를 차지하려 합니다. 가진 자가 다 가지려 하는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요 오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회사업가는 그래서 안 됩니다. 다른 사회사업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회사업가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하셨습니다. 마10:43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눅12:48

남보다 더 받은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누린 사람은, 좋은 자리 편한 일 돈과 권력은 남에게 양보하고 남보다 더 어려운 곳에서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출신이나 석·박사 출신 중에 시골이나 시설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거나 뜻이 있어서 대도시, 대학교, 정부, 연구소, 전담 공무원, 재단, 병원, 복지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곳에서도 남보다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답습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도전·개척하며 개선·개발·혁신·공유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사회사업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회사업가는 더욱,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로 다투어 가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13. 도전하고 개척하자

1) 황무지라도 개척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에, 요셉의 자손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큰 민족이 되었으니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했습니다. 산지라도 개척해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수17:14~18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벨 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즉 한 분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2)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여호와와 명령을 좇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다른 열 지파의 두령들이 함께 가서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열 지파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곡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민13~14장

그 후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민 26:52~56)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수14:6~12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렘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품고 꿈꾸어 온 사람 갈렘.

85세의 나이임에도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의 일등공신임에도 좋은 땅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험한 산지를 개척하여 기업을 삼켰다고 나서는 그 정신이 놀랍습니다.

그곳 사람이 비록 장대하고 그 성읍이 비록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외치는 그 믿음이 놀랍습니다.

팔십 오 세가 되어서까지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 갈렘을 보며, 제가 가야 할 복지인의 길을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해야 할 산지를 생각합니다.

복지의 지평 그 어느 곳에 서야 할지 생각합니다.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를 다시 생각합니다.²⁹⁾

29)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홍진호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²

14. 자비량 사회사업가

자신의 생업을 통해 선교하거나, 생계 수단을 따로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을 자비량^{自備糧}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생업을 갖고 거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사회사업을 하거나 그 직업으로써 사회사업하는 사람을 자비량 사회사업가라고 합니다.

1) 구제의 비용 및 보수에 관한 바울의 모범

바울은 보수를 받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는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그 일을 하여 선교와 구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행18:2~3 바울이 그들(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살전 2: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살후3: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행20:34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새번역

바울은 이와 같이 「구제와 선교의 비용 및 보수」에 대하여 귀한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되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였고, 보수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돕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야로 일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손으로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엡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 구제 및 선교 비용에 관한 다른 이야기

고후11:8~9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쁜 아닙니다. 핍박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서 거액의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고후 8~9장

바울도 일부 사업비는 후원받거나 모금한 것 같습니다.

15. 보답을 바라지 말고 돕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사람들을 돕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받을 걸 바라고 꾸어 준다면 칭찬 받을 게 없으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대접하려거든 값은 것 없는 약자들을 초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눅6:34~35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눅14:12~14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값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을 받겠음이라.

그런즉 우리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수를 (더/다) 요구하지 아니하고 값 없이 돕는 것,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고전9:17~18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도움 받는 사람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훼방하거나 악으로 갚을 때 어찌해야 할까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이 듣고 회개하거나 감사하지 않았 습니다. 비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여호와와의 말 씀을 전하는데, 그 일 때문에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 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렘20:9

사회사업도 그러합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감사는커녕 도리 어 해를 끼치는 사람 때문에 “다시는 돕지 않으리라. 차라리 사회사 업 그만 두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회사업을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사람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시다 합 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눅6: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 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라.

16. 권리

①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그 높은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종과 같이 스스로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디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빌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후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② 모세의 모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히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③ 바울의 모범

바울은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일하여 얻은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신분으로나 학문으로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자신을 위하여 그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스스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 주리고 목마르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고전9:11~12,14~15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14~15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새번역

살후3:9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번역

고전4:10~13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다.

④ 느헤미야의 모범

페르시아 왕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느5:18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⑤ 아브라함의 모범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벤엘 근처에 있을 때에, 아브람과 그 일행 롯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머물기에는 땅이 비좁았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좋아 보이는 요단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창세기 13장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와 형 에서와 함께 살 때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양보했습니다.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창 36:6~8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곳 차지하려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⑥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도울 수 없을까요?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 공주의 아들, 사도의 권위, 총독의 녹봉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더 마음 쓸 수는 없을까요?

좋은 자리 차지할 실력이 있고 권리가 있을지라도 더 낮은 자리 자취할 수는 없을까요? 보수를 받아 누릴 권리가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여 다 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희생·봉사하며 청빈하게 살 수 없을까요?

갈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7. 인자와 공의

인자와 공의, 이는 사회사업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치우치면 불의한 사람 혹은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잠3:3~4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미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21: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동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운동적 성향의 활동가나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공의에 치우쳐 인자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동정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동정을 금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동정해야 할 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불쌍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정하라, 불쌍히 여기라' 합니다.

엡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벤전3: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서는 딱한 사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정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 보게 하실 때에도(마 20:31~34), 나병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케 하실 때에도(막 1:40~43),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 11:33~35)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눅 7:11~17)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었습니다.(눅10:33~34)

그렇다고 인자만으로 사회사업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를 버릴 수 없고 공리와 효율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사업하는 사람은 그 일을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시112: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편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빈부귀천을 일반으로 여기고 불편부당,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아야 합니다.

레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출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18. 사랑과 지식

마음은 따뜻한데 지식이 없는^{부족한} 사람, 지식은 많은데 냉정한 사람을 가리켜 자격이 없다거나 소용없다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사회사업에는 따뜻한 마음만 있어도 되는 일이 있고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희생하기까지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전13:3)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선행이 전혀 무익하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내게는 무익할지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까지 사랑이 없다며 폄하하거나,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과 지식,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식 없는 사랑은 선치 못합니다. 무엇이 참 사랑이며 어떻게 돕는 게 진정한 사랑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지식, 인자와 진리를 겸비하도록 노력하되, 사랑만 있으면 된다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든지 하는 극단적 주장은 삼가야 합니다.

특별히 비전공자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니 전문성이 없다니 하여 배척하거나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헌신적 수고와 따뜻한 사랑을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지식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질적으로 보면 그 차이마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랑이 더 좋은 사랑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지식이 더 좋은 지식인지 누가 어떻게 비교하겠으며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사랑과 지식, 어느 쪽이든 아주 없다 할 수도 없고 온전히 갖추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지식에 관한 한 누가 온전하다 할 수 있으며 누구를 비난·배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사랑이 있는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에 대하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성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 대하여는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고전8:1~2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스스로 전문가라 하여 비전공자를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갖는다면 이는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에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지 말고 다만 낮은 데 처하여 겸손히 행하되, 비전공자 특별히 비법인 시설의 활동가를 대하여 더욱 삼가야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행위 대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쓸모 있게 하시고 그로써 지혜 있다 하는 자, 강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고전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회사업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문벌·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니 스스로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만약 자격증이나 학위를 내세워 스스로 지식이 있다 전문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지 모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

사랑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낮은 데 처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온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도와주는 사람, 상담해 주는 사람, 전문가라 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고, 낮은 데 처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효과와 효율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롬12:15~16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요일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하나는 이리하고 하나는 저리하다

내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선한 게 남의 처지에서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 기준이 남과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를 삼가야 합니다. 부득이 판단할 경우라도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오만하거나 배타적인 태도, 심지어는 무례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남을 그렇게 가르치거나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³⁰⁾

30) 딤후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마 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전7:6~7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3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 독신의 삶이 좋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처럼 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합니다. 당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낫다 하면서도 또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합니다. 32)

바울에게서 고전 7~8장에서 다른 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사람마다 은사·지식·철학·성품·능력·치지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31) 롬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잠27: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32) 마19:10~12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1)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복지기계가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저런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사회사업의 더 중한 바 인격과 관계를 훼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서 항상 나쁘기만 한 건 없습니다. 저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으며, 통하는 경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기계도 그러합니다.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기계라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기계가 최선인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의 더 중한 바 인격과 관계를 살리되 또한 복지기계도 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2) 좋고 나쁨에 때가 있습니다.

무릇 어떤 행위나 사물은 그 귀하고 천함에 때가 있는 것이지, 항상 좋다거나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나쁠니까?

눅5:29~32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금식 기도는 어느 경우에도 좋습니까?

눅5:33~35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 존중,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원칙일까요?

삼상15:2~3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우상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따름은 항상 나쁠까요?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병을 치료하고 돌아가는 길에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옆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였습니다. 왕하5:17~19

새 옷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눅5:36~38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곡식이라고 다 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건 아닙니다.

사28:24~29 과중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곳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20.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써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반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행과 장점마저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약한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장점이 타인의 단점을 드러내거나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면 더욱 겸비하여 자랑할 마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은연중이라도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월감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소신과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일지라도 겸손과 사랑으로써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신·지식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독선·아집인지도 모릅니다. 관용하고 양보하고 물러나는 게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소신에 집착하다가 기가 손상되고 즐거움과 평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소신대로만 살기는 어렵고 또한 소신도 변할 수 있으니 때로는 제 소신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소신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소신과 지식대로 행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평안과 화목을 해친다면 차라리 아니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1) 소신과 지식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제사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하여 우상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제사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소신과 지식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롬14: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딤후4:3~5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고전8:4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막7:1~23 중 19절

참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본 음식 환상’ 중 14~15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지식·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므로 그것이 우상의 것인 줄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전8: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내 지식·소신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자칫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전8:10~12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나오는 고기, 즉 제사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고전10:25~27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으므로, 제물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보는 신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도, 불신자가 대접하는 것도, 그 출처를 물어보지 말고 양심에 거리낌없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이것은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입니다.” 하면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배려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전10: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지만 그로써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게 덕을 세우는지, 남에게도 유익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고전8:8~9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전8: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전10:23~24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10:31~33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롬14:15~21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각자 자신의 지식과 소신을 따라 행하되, 그로써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는 말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소신 뿐 아니라 다른 가치(덕, 화평, 남의 유익)도 생각하고 또한 더 큰 가치(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마17:24~27 가버나움에 이르니 (성전세)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전의 주인이시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셨습니다.

2) 다니엘의 선택

단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오는 음식인데 먹어도 되는가, 죄냐 아니냐, 이런 기준에서 겨우 죄나 면피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합당하게, 더 성결하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적극적 기준에서 뜻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음주 흡연

음주·흡연, 죄냐 아니냐?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가불가나 따지는 소극적 기준보다,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런 적극적 기준으로 판단할 일입니다.³³⁾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고, 그렇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고전10:23

33)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고 판단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술을 마시는 상황(요한복음 2장)·사람(딤후 5:23)·동기·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음주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3) 균형

마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소신과 지식, 진리, 공의에 대입하고, 뱀같이 지혜로움은 다양성, 수용, 변통, 조화, 겸손, 인자에 대입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소신과 조화, 인자와 공의를 겸비하려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르자니 저것을 거스르고, 저것을 지키자니 이것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죽대 없음이 아님을 어찌 알며, 소신을 따름이 독선이나 아집이 아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21. 한 가지만이라도

눅10:38~42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동생 때문에 짜증도 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더 좋은 편을 택하여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력이 소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는 동안에는 저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 일이 우리 기관의 정체성과 사명에 부합하는 일인지, 또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에 부합하는 일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지, 내가 그 일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서 11:10 너무 많은 일에 뛰어들지 말아라. 일이 많으면 실수가 따른다. 또한 아무리 뛰어도 일을 다 따라가지 못하며 일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피할 길이 없어진다.

22. 정체성과 본분에 충실하게

1) 초대교회 열두 사도의 선택

행6:1~6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정체성과 사명, 역량과 기회비용을 헤아려 일을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열두 사도의 예는 본받을 만합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열두 사도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 바울의 선택

빌3:7~9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가치 있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무익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쓸모 없거나 나쁜 것이어서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빌3:4~6 쉬운성경

바울은 또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³⁴⁾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것들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핵심을 선택했고, 다른 걸 포기한 것입니다.

34) 행22: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행5: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갈2:8~9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함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나중에 전도해도 될 일이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롬9:1~3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13:46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 그렇게 원하는 바였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다른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사명, 즉 이방인 전도를 선택했고 그 일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면서도 유대인을 아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이방인에게로 갔으나 그 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전1:13~17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주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일은 내려놓았습니다.

3) 예수님의 선택

눅12:13~15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혼잡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 정체성을 밝혀 그 밖의 일을 버리신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가르치는 일 그 사명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믿도록 만들어야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13:54~58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눅9:51~56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지시하신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10:5~6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10:11~14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나 거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참고 :

눅4:25~27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 간 단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대조 :

예수께서는 이방인도 아주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셨고(눅7:2~10),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도 고쳐 주셨습니다.

마15:21~2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4) 지체 의식

롬12:3~8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전12:14~21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사회복지도 여러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사회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가라는 지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각 그 직업으로써 봉사하는 것이며 사회사업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회복지를 이루는 각 지체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알고 또한 그 한계를 알아 사회사업 핵심 소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일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자리에 속하는 일,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 즉 남의 일까지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저마다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통하여 돕도록 잘 주선하고 거들어 주어야 합니다.

선교가 중요하다고 다 선교사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다 교사이겠습니까?

다 성직자이겠습니까?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중요하고 또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그 일을 하려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듣는 게 시급하다 해서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저마다 제 몫에 충실할 때 사람살이의 바탕이 튼실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살이의 바탕이 튼실해져야 약자의 복지도 사회복지도 든든히 서는 법입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이것저것 다 하려들지 말고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맞게 사회사업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5) 본분

잠22: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27:23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기 맡은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해야 합니다. 직업은 그것을 통해 봉사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이므로 마땅히 선한 청지기처럼 우선 맡은 일부터 잘 해야 합니다. 자기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자기 소 떼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2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잠26:17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대상9:28~33 (레위 사람 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의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맛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6) 웃시야의 월권, 사울의 월권

대하 26:16~18 (웃시야 왕)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와의 용맹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웃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웃시야 왕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한 월권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나병환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와 같은 죄를 지어 멸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를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블레셋은 대규모 군사력으로 공격해오려 하고 군사들은 두려워 흩어지고 사무엘은 더디 오니 다급하여 부득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냉엄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월권 행위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7) 나무들의 왕

삿9:8~13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왕이 되어 공동체를 섬기는 건 귀합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왕이 될 만하다고 보았기에 나무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양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도 아니요, 무익해서도 아니요, 중요하지 않거나 절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잘할 수 있고 유익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지만 자신의 정체성, 제자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양한 것입니다.

23.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 다 하려고 하면 일에 치이고 책임이 심히 중하여 고달픕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적절히 위임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동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1) 모세의 위임과 동역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송사를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기력이 쇠하는 것조차 개의치 아니하고 직접 서비스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치 못했습니다. 몇 사람의 송사는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먼 길을 와서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이 일을 분담했습니다.

출18:13~26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됩이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

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민11:11~17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

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³⁵⁾

신1:12~13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35)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영이 임하게 하시니 그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지도자는 회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말리기는커녕,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에 칠십 인의 지도자가 추가되고 모세에게 임한 신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므로 이를 질투하였나 봅니다.

여기에서 본문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사업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배타적으로 독점하려 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자,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과 직업 속에서 돕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가 높아질 때에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3:30)” 이렇게 기뻐하며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2) 바울의 동역자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3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빌4:13~14 쉬운성경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주어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도와주었고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쓸 것을 여러 번 보내 준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빌4:18

바울에게는 모든 게 풍족하다 하니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모든 게 풍족한 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 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빌4:18 쉬운성경”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고맙다.”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데 그것은 여러분이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합니다.

전에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알았으나 바로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신령한 은사와 계시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³⁶⁾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였던 모세도 동역자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과 동역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겠습니까?

전4:9~12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6) 몬1:24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 롬 16: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롬16:9, 2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두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디모테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 몬1:1~2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테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 고후8: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 빌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 기도의 동역자

다니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꿈을 꾸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단2:17~18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에게 나아가 그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친구들을 왕에게 천거했고,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감사 보답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³⁷⁾ 신령한 은사와 계시와 체험이 있는 능력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으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37) 살전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 고후1: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 엡6:18~19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 골4:2~3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 살후3:1~2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4) 중보 기도

동료 복지인이나 제자, 혹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저를 위해 기도해오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힘입어 사는 것 같습니다.

더욱 든든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롬8:34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쉬운성경

롬8:26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쉬운성경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저를 위해 중보해 주옵소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 선진들의 중보 기도 모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50, 45, 40, 30, 20, 10 의인 십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여러 차례 감히 말을 바꿔가며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창세기 18~19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였을 때, 여호와께로 나아가 슬피하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롬9:3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이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내니 쇠사슬이 벗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 성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행12:5~12

동료 복지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사회사업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그려 봅니다. 진실한 복지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중보 기도로 섬기고 싶습니다.

6) 동료들 가리어 사귀자.

잠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귀는 사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니, 동료들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단, 외모로 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잠31:30

잠27:5~6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처럼 지혜와 지식, 지지와 격려, 인정과 비판, 도전과 자극으로써 사회사업 더 잘하도록 책선하는 사람을 가까이 함이 좋습니다.

고전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잠29: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모압·암몬 연합군이 침략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함으로 싸움에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역대하 19~20장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 관계를 맺고 전쟁에서 아합 왕을 도와 싸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또한 심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하19: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대하18장.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한 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대하20:35~37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주 불평 또는 험담하는 사람, 실력과 덕을 쌓는 데는 게으르면서 자기 몫 챙기는 데는 빠른 사람, 불의한 사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잠23:20~21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22:24~25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24:1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대조 :

고전5:9~11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6:14~17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특히 먹고 마시는 자리는 더욱 삼가 가려야 합니다.

복지인이라 일컫는 사람으로서 불선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겠지만, 상대방이 복지인이 아닐지라도 먹는 자리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이 내게 음식을 베푸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좋은 말을 할지라도 헛된 낭비일 뿐이며 오히려 구차스러울 따름입니다.

잠23:1~3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나 네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잠23:6~8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24. 때때로 쉬자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23:2 (여호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데도다.

1)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자

시131:1~2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하기를 젖 떤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떤 아이와 같도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며, 즐겁게 일하고 평안히 쉬며 낙을 누리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일로 몸을 혹사하거나 마음을 피곤케 하지 맙시다.

2) 바빠도 쉬자

눅5:15~16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막6:30~31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상황은, 허다한 무리가 절박한 욕구와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 다. 제자들을 불러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고 하셨을 때도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사업 상황도 그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렵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푸른 풀밭에 누워 한가로이 쉬는 건 분에 넘치는 호사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로 가서 쉴 상황이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한가로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까요?

사회사업은 끝이 없으니 때때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거나 쉬는 게 좋겠습니다.

3)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살자

전2:24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새번역

전3:12~13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3: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5: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음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³⁸⁾

38) 잠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시128:3~4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잠5:18~19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축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조) 삼하11: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4) 평강을 누리자

골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후3:16

5) 잠을 달게 자자.

시4: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3: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127: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³⁹⁾

39) 대조 :

잠6:9~11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잠19:15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잠20:13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23: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6) 역설

전1: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 하느니라.

전12:12 내 아들이야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4: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7:15~18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⁴⁰⁾

40)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새번역

25. 안식일

창2:2~3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레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니라.

신5:12~14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58:13~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이 계명을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안식일의 취지와 지혜를 살리고 싶습니다.

1) 안식일과 선행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눅13:10~17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써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요7:23~24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써 판단하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라 하셨습니다.

마12:1~5, 7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질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십니다.

막2:27~28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12:10~13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2) 사회사업가의 주일 근무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지만⁴¹⁾, 선한 일로 안식일에 당번이 되거든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봉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⁴²⁾

저는 기관에 재직할 때에 주일성수를 중시했고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특성상 부득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이라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면하기를 바라지 말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를 거부하면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종종 비난을 초래합니다. 어찌면 공의로 판단치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요7:23~24)

이런 크리스천 사회사업가를 보시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41) 마24: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42) 레위 사람들도 안식일에 당번과 비번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3장에 보면 안식일에 당번인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사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의 약속을 따라 요아스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고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 신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이 거사는 안식일에 일으켰고 이 날에 모든 레위 사람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아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한 두 번 말씀드려 보고, 뜻을 이룰 수 없거든 조용히 다른 직장을 찾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 떠나더라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감사와 축복의 정으로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도 험담하지 말고 친절같이 아껴야 합니다.

딤후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마 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살후3:14~15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26. 어려울 때

일이 잘 안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방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혹독한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상자에게 환멸을 느껴 그만두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또는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맡아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사람의 염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욕심이나 게으름 또는 방심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말실수 때문에 화를 입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몰라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이 근심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사업이냐고 자괴하기도 하고 남들이 비웃기도 합니다.⁴³⁾

43) 막15:29~32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1) 성찰하자

먼저 나를 반성하여 스스로 고칠 일이 있으면 고치되 혹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합당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개역한글

약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마5:23~24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무례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알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정금 같이 연단하시려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경우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것까지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2) 감사하자, 찬양하자

①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결국 이 어려움까지 함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니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살전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② 찬양

주의 심판은 다 옳고 주의 행위는 다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할 것뿐입니다.

시119: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145: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시51:4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새번역

3)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자.

무릇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려움도 생기는 법입니다.

딤후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요일3: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벧전4:12~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롬5:3~4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약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골 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후12:7~10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4) 낙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잠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시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27:1~3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 사회사업 훈련으로 여기자.

고후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로써 우리도 고난 받은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써, 고난 받은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가는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시험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6) 단련 후에 순금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자.

시119: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12:5~11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새번역

욥23:10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롬8:17~18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7) 고난에 대처한 모범

① 예수님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이때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히12:1~3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5:8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쉬운성경

벧전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44)

44) 찬송가 455장 3절 :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② 욥

약5:10~11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1:20~22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배하였습니다.

욥2:7~10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려움을 당하여 인내하기를 이같이 하였으니,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욥42:12~15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겐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케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⁴⁵⁾

45)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느 날 독일의 한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심방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타 죽었는데, 두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 찬송시라고 합니다.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③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고백을 읽고서 더욱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그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되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했다는 예레미야 선지자. 46) 예레미야애가 3장 1~18절에는 그가 얼마나 극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신앙고백을 읽을 때마다 형언키 어려운 감동을 느낍니다.

애3:19~23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46) 애3:48~49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어.

④ 여호사밧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20:12}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고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대하20:21}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적을 진멸하셨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가 있으나, 바로 그럴 때라도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종종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⑤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 왕은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 나와 도망합니다. 자식을 피하여 도망하는 처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말 -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삼하15:25~26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고난이 비록 자신의 죄나 실정으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염치없고 면목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을 의로우신 주권자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다만 마음을 비우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태도입니다.

⑥ 르호보암

대하 12:1~2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7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검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검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검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스스로 검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애굽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여호와와 행위를 “옳다, 의로우시다.” 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할 때 더욱 검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할 것입니다. 회개는 물론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⑦ 다니엘

다니엘 6장에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오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세워달라고 왕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지요?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단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감사한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단6:26~28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8) 잠잠히 참아 기다리자.

애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렘29:1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입니다. 주께서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애3:26~28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명예를 떼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음이라.

시40: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37:7~8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9)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자.

벧전2:19~20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벧전3: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4:15~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 하나님만 더욱 의뢰하자.

고후1:8~9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잠18: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31: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시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험당할 때 기도에 이 약속을 담아 의뢰합니다.

고전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1)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인간관계 곧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성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16:7

인간관계에 서투르거나 결례하지 않았나 반성도 하지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쓰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행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먼저 생각한 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궁리합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참으셨는지 생각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히 12:1~3

복수하고 싶을 때는 202쪽 「원수 갚는 방법」을 읽습니다.

그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예수를 먼저 바라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행사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국 회복하실 것이며, 모든 것을 함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12) 남이 어려움 당할 때는

① 동정하자. 겸손하자.

벧전3:8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우리말성경

② 함께 울자. 돕자

롬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일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③ 정죄하지 말자.

요9:2~3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새번역

④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생각 말자.

눅13:1~3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13:4~5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⑤ 위해서 기도하자

⑥ 욥이 고난당할 때 그를 정죄한 친구들

욥2:11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는 말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위로하려 왔던 세 친구는 처음에는 소리 질러 울며 겹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 후에 논쟁하기를 욥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하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4: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8:3~7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22:4~5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네 악이 크지 아니하나?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32:3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화를 낸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였고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았습시다. 욥에게 필요했던 건 이런 게 아닐까요?

욥19:21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42:11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세번씩

27. 원수

1)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잠20: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24: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롬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신32:35)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벧전2:23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삼상24:12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47)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갚으시되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시75:6~7, 벧전5:5~6)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이 좋습니다.(시37:7)

47)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한 원수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 원수가 불행을 기뻐하지 말자, '잘됐다' 하지 말자

잠 24:17~18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17:5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욥31:29~30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새번역

3) 악을 선으로 갚자

벧전3:9 악을 악으로 욱을 욱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살전5:15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새번역

롬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12:20~21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출23:4~5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4) 원수를 위해 기도하자, 축복하자

시109:4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35:11~14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내 가슴에 되돌아왔을 때 그가 내 친구나 형제인양 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고개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우리말성경

다윗은 여기 시편 35편에서도 그리고 시편 109편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되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마5:43~4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6:27~28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롬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눅23:34 십자가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행7:59~60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 용서하자

마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막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골3:13~14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엡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6:12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쉬운성경.

잠17: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마18:21~22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6) 요셉의 용서와 사랑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고, 죽이고자 하였으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마침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그 후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정탐꾼과 도둑으로 몰려 애굽 총리 요셉 앞에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여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만났다, 복수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여 형들을 안심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니까 차마 형들에게 복수하지 못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과 50장

7) 다윗의 모범 (삼상 16~26장)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사울 왕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올 때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나, 오직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며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울 왕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 왕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노래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탄즉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오히려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돌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심지어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며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의 양피를 가져오니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알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거듭 거듭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라 했을 뿐 아니라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은 무참히 살육하였습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때가 되었으니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왕의 겹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이르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까.”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다윗을 확대하되 다윗은 사울 왕을 선대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데리고 십 광야로 내려가서 진을 쳤는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밤에 나아가 본즉 사울 왕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군대장관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찢어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

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잘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조상했습니다. 삼하1장

8) 사도 바울의 모범

딤후4:14~16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많은 해를 받았으나 직접 갚지 않고 주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고 믿고, 다만 주의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려울 때에 함께한 자가 없고 모두 자기를 버렸으나 그것을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28. 저주받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의 일입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있는데, 시무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꺼져라! 살인자야! 이 불한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주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네가 피를 흘렸으니 네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군대장관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삼하16:5-13

저주를 받을 때, 당장에 그 목을 베어 버리고 싶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주마저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다윗의 이 믿음을 보며 감동합니다.

잠16: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 저주까지도 -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악인과 그의 저주까지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1) 까닭 없이 저주할까. 오래 참고 깊이 생각한 후에 대응하자

잠26: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12: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2)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신23:3~6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모압 평지에 이르니,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발락의 사자들을 따라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높은 벼슬과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집요하게 회유하니 발람이 마침내 발락의 사자들을 따라 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거기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원수는 나를 저주하려 애쓰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원수는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비교 :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만년에 야곱을 축복하기를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3) 제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제주도 내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할지라도 흥분하거나 맞서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의연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애3:37~38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암3:6 여호와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욥1:6~12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왕상22:19~23⁴⁸)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찢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찢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찢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눅22:31~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마10:29~31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48) 선지자 미가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시리아)이 차지한 길르앗의 라못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400명 가량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의 승리를 예언하며 싸우러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9. 구설의 다툼, 사람의 평가

일하다보면 남의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구설의 다툼을 면하고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시31:19~20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설의 다툼이나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하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말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자.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사람이 나를 악평할 때 자성하되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대조 | 비판·충고·책망을 받을 때 255쪽. 저주받을 때 210쪽.

1) 사람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잠29:25~26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맡기암느니라.

많은 사람이 상사, 관리자, 인사권자, 평가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면, 점점 더 올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건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의지할수록 손에 찢려 들어가 점점 더 비굴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거나 사람의 시비를 피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쓰고 살다 보면 결국 사람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어디에서 가치를 찾으며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가, 너희 마음 들
곳, 너희 의지할 바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겠노라.

수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
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미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
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옳다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시118:6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이 내게 어찌할까?

롬8:31,33~34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
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
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50:8~9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
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잠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
게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2)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갈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살전2: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자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장로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행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출1:15~21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한다고 해서 구설의 다툼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빠져들 뿐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섭리에 맡기는 게 단순하고 평안하게 사는 법입니다.

약4:4~5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요12:42~43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51:12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막15: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리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무리의 환심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3) 칭찬

칭찬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잠27: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그러므로 칭찬 받을 때에 우쭐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수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 해서 안 됩니다.

구설의 다툼, 사람의 평가에서 진정 자유롭게 되는 길은, 칭찬이든 지 책망이든지 그저 한결같은 낮빛과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사람의 평가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고전4:3~4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후10: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4)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딤후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잠29: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눅6: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터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선택받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요15:18-19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어찌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 받겠습니까?

비교 | 전7:5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칭송)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조 | 비판·충고·책망을 받을 때 255쪽. 저주받을 때 210쪽.

30.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말자

① 사회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재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고전4:7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후3: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②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받은 것도 아닙니다.

대상29: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③ 우리에게 있는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자랑하거나 사례받을 일이 아닙니다.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눅17:9~10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④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전15:10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⑤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딤후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⑥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스스로 칭찬하거나 자랑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10: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다.

앗수르 왕이 그랬습니다.

앗수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몽둥이와 막대기에 불과한데, 앗수르 왕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저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냈다. 이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기를 다 행하신 후에는 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앗수르 왕을 심판하시리라. 사10:5~15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단4:30~32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⑦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불지 말라 하셨습니다. 공치사나 자화자찬은 천한 것이라, 남들이 욕할 터이요 스스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는 자기 수고를 헛되게 할 뿐입니다.

마6:1~4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49)

살전2:6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요5: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9) 비교 | 마5:15~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후9:12~13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구제 헌금)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벧전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⑧ 칭찬은 남이 해 주는 것입니다.

잠27: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고후10:17~18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후10: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⑨ 내가 본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대상17:16 (다윗 왕이 축복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전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⑩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구제하는 자는 그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렘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⑪ 임의로 봉사할지라도 이럴진대 하물며 보수를 받는 사회사업가임에랴. 다만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고전9:16~17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⑫ 실질 이상으로 평가되는 걸 꺼립니다.

고후12: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⑬ 공명을 버리고 물러나라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이 암몬 족속의 도성인 랍바를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왕은 군사를 모아 진 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하여,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성을 점령하고 금관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공을 다윗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삼하 12:26~31

○

올무를 벗어나는 새처럼 속히 떠남이 좋습니다.

마14:19~23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⁵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50) 요6:14-15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3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1) 모세

민20:7~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27:12~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 물이니라.

시106:32~33 그들이 또 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명령되이 말하였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모세는 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시편106편)

자기 능력으로 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라?” 하고 ‘우리’를 내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리라.” 하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2) 헤롯

행12:21~23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3)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40~44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에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

4) 베드로의 모범

고넬료가 그의 집에서 일가 친지와 함께 기다리다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행10:24~26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행3:1~16

5) 바울과 바나바의 모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신으로 여겨 제사지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기들에게는 제사하지 못하게 말했습니다. 행14:8~19

6) 천사의 모범

계22:8~9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7) 요셉의 모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창 41:16

8) 다니엘의 모범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보이지 못하면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박사들의 생명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생색내거나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왕에게나 박사들에게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밝힌 후에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 2장

9) 사무엘의 모범

사무엘상 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쎄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펠이라 하니라.

10)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거나, 제 것으로 돕는 양 생색낼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요셉, 다니엘, 바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시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셨습니다.⁵¹⁾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⁵²⁾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지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셨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⁵³⁾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51) 시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31: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사48:11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52) 렘33:2~3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53) 사9:7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왕하19:31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32. 사업의 평가와 보고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행14: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행15: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행15: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다음 선교여행 후 예루살렘에 이르러 또한 이렇게 보고합니다.

행21:18~21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사업을 평가·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행하신 일을 드러냄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⁵⁴⁾

54) 일반 사회사업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보고할 때조차 '적절한 표현'을 찾는 데 종종 어려움을 느낍니다.

230쪽 이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 말씀도 같은 숙제입니다.

비교

사회사업가는 복지를 이루는 일이 '자주하는 당사자의 삶'이 되도록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생하는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되도록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지를 이루는 이룬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합니다.

당사자가 이룬 당신의 삶이었다고, 지역사회가 이룬 주민 여러분의 사람살이였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업 보고서 | 기록·발표·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삶과 사회의 사람살이를 돋보이게 해야 좋은 보고서입니다. 당사자의 삶이나 지역사회 사람살이보다 사회사업가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주객이 바뀐 보고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위주로 쓰되 사람다움이 묻어나고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이야기,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일반 사회사업은 이와 같이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빛나게 합니다. 복지를 이룬 주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을 돌리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합니다.

언어

1. 언어의 비결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 이는 대체로 언어로써 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사회사업의 핵심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법을 배우지만 더욱 중요한 건 언어의 원천입니다. 원천 없이 기술로써 꾸민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12: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1)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에 능치 못하다고 뒤로 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을 지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하시고 말 잘하는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출4:10~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4:13~16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도 말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말하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렘1:4~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제 입을 지으신 하나님,
제게도 할 말을 가르치소서.

2)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10:18~20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눅21:12~15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제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3) 좋은 심성과 지성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심성과 지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하며 그 머리에 쌓은 지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머리에 좋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마12:33~35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15: 18~20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잠15: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2. 강의, 상담

강의도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기회입니다. 강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강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이니 담대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붙이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말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리라 하신 주님, 제게도 할 말을 주소서.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하소서. 쓸모 있는 말로써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소서.”

벧전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벧후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삼하23:2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엡4:29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들의 필요에 소용되는 대로, 주의 뜻 이루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지혜롭게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합니다.

마7:28~2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게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어 권위 있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50:4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종종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먼저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 귀를 깨우쳐 주의 뜻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또한 저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학자의 혀를 제게 주사 주의 뜻을 밝히게 하소서.”

특히 질문에 답할 때와 상담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심정을 공감하게 하소서. 또한 학자의 혀를 제게 주사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3. 축복

민6:23~26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요삼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은 매 편지의 처음과 끝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하는 축복으로 끝맺습니다.

창39:2~5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대상4: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살후2:16~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장에 나가는 사회사업가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소서. 그를 위하여 기관과 동료와 이용자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그를 인하여 기관이 그 분야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그 분야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섬김의 지경을 넓히시되, 구설의 다툼과 유혹과 소진과 타성을 벗어나 허물이 없게 하소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소서.”

4. 험담

잠10:18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레19:16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30:10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잠18: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전10:20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들으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⁵⁵⁾ 맞장구 치지도 말고 웃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나를 미워할 것이요, 나 스스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잠18:17 송사에서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집회서 5:14 남의 험담을 좋아해서 네 혀로 사람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공동번역

55) 험담 같은 푸념이나 하소연이라도 들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험담하지 말라고 딱 잘라 버리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은 마음을 각박하게 내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겸비하라 하신 말씀이 맴돕니다.

5. 의혹, 소문

출23:1~2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처음 듣는 이야기, 잘 모르는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의혹, 험담, 유언비어나 풍설에 대하여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봅니다.

니고데모는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베뢰아 사람들은 교양 있게 확인했고, 가말리엘은 신중했습니다.

①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대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및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 받은 사람들이다.” 하니 니고데모가 반박하기를,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했습니다. 요 7:43~53

옛 사람이 말하기를, 직접 본 것이라도 다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어 두렵거늘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싫어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 보고 또한 그 행하는 바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베뢰아 사람들의 교양 있는 태도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배척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자세히 고찰했습니다.

행17:11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쉬운성경

③ 가말리엘의 신중한 자세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공회)가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사 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행5:35~39

6. 비밀

잠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20: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25:9~10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집회서 27:21 상처는 봉대로 감을 수 있고 험담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희망이 없다.

집회서 22:22 친구와 다투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모욕과 멸시와 비밀 폭로와 배신 행위, 이런 것들은 친구를 영영 잃게 한다.

집회서 27:16~17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만일 그의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집회서 8:17~18 어리석은 자와 털어놓고 의논하지 말아라. 그는 비밀을 지킬 줄 모른다. 비밀에 속할 일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다.

집회서 41:26 내가 들은 말을 남에게 옮기며 수다를 떨었을 때와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 수치심을 가져라.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7. 비판

1) 비판하지 말자

눅6: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7:1~3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2)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벌받은 것이라 하지 말자

눅13:1~5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사64:6)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서겠습니까?(시130:3)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요일3:20)

3) 나는 그와 같지 않다고 자만하지 말자

눅18:9~14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4) 선 줄로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자

고전10:11~12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5)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요8:3~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8:7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 책망

집회서 11:7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하여라.

1) 나는?

마7:3~5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갈6:1 형제들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딤후5:22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대하27:10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⁵⁶⁾

56) 유다왕 아하스가 범죄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넘기셨더니,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무려 이십만 명이나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약탈하여 가져갔습니다.

이에 선지자 오벳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2) 먼저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자

마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 상대가 감당할 수 있게 하자

이미 많은 사람한테서 상당한 벌·책망·비난을 받았다면, 나까지 가세하여 몰아붙일 일이 아닙니다. 심하면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고후2:6~8 이러한 사람⁵⁷⁾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요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고전3:1~2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57) 5절에 '근심하게 한 자'라 했을 뿐 더 명시하지 않았습니니다. 관주는 고전 5:1~2와 비교하라 합니다.

고전5:1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4) 책망 받을 때

책망·충고·비난·비판·조언을 들을 때는 우선 마음을 열고 끝까지 경청하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낙심하거나 당장 반박·변론·변명·논쟁하려들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반응하자.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자. 오류가 있으면 고치고 결점이 있으면 보완하자. 그 말로써 나를 더욱 다듬고 보완하자, 내 것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하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 중인 우리아를 소환하여 아내와 같이 자게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사울 왕은 책망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80쪽 참조

잠29: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19:20 너는 권고(충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13: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충고)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27:17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새번역

잠15: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조언자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대조 :

집회서 37:7~15 모든 조언자들은 자기 충고가 옳다고 하지만 간혹 사욕을 채우려고 조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충고해 주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고 먼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아라. 그의 조언은 네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지당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반대편에서 네가 잘못되기를 기다린다.

너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상의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에게 네 계획을 말하지 말아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상인과 장사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사는 사람과 팔 값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인색한 사람과 사례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부실한 종과 큰일에 관하여 상의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충고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되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네 마음의 충고를 따라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일곱 경비원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히 더 좋은 경고를 해준다.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너를 진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공동번역

5) 아이를 책망할 때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지 말자. 마음의 상처를 만들지 말자. 기죽이지 말자. 격분하게 하지 말자. 한을 품게 하지 말자. 적개심·복수심으로 증오하게 하지 말자.

골3:21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엡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죽여 버리겠다느니 죽을 줄 알라느니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자.

잠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12: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6) 지도자와 어른에 대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천부장은 그 이유와 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반박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니 바울이 곧 사과하기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행23:1~5

출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에굽 왕 바로는 거둑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디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롬9:17~18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사람이 있겠으나 성경은 이 같이 따져 묻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롬9:19~20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히 쓸 그릇이나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잡을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으니 모세를 견책한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는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그가 나 여호와와의 형상을 볼 수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쫓겨났습니다. 민수기 12장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며 그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죽이려 하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며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마땅히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지도자·어른·윗사람이라도 비판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결국 이 어떠할지, 후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신 말씀이 그 논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마18: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화가 있도다.

그렇다고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윗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비판하지 말란 말입니까?

상대방이 비록 어른이라도 시비를 가려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태도와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불손한 태도 혹은 꾸짖는 듯한 말투로 대하다가는 문제의 본질은 묻혀 버리고 그 무례함이 시빗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을 대하여는, 치매노인일지라도, 거칠게 꾸짖지 말고 마치 부형을 대하듯 공손히 말씀 드려야 합니다.

딤편5:1~2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상전, 어른, 지도자 - 더 생각해 볼 말씀

골3:22~23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6:5~7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딤후6:1~2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롬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요19:10~11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딤후3:1~2 너는 그들(신자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벧전2:13~14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딤후2:1~3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전10: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레19:32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9. 맹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참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일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저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약속하기를 꺼립니다. 맹세는 더욱 못합니다. 계획이라는 것도 지금 생각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전8: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잠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약4:13~16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②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마26:33~34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③ 주께서 허락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행16:6~10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잠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16: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약속⁵⁸⁾이나 거짓 맹세는 물론이고, 어떠한 맹세나 약속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마5:33~34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마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약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58) 또 올게. 잊지 않을 거야. 최선을 다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1) 서원 서약

전5:2~6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민30: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⁵⁹⁾

신23:21~23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잠20:25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이 되느니라.

59) 사람 사이의 서약도 그러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16절)에는 유년 여자가 그 아버지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한 서원과 서약의 효력 및 책임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 한나의 서원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 괘시받는 게 서럽고 괴로워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자 한나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고, 젖떼기까지 기르다가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서원대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는 그 후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고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② 입다의 서원

입다가 암몬 군대와 싸우러 갈 때에 여호와께 서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개선하여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는 결국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2) 보증에 관한 교훈

잠6:1~5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었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이야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11: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17: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22:26~27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잠27:13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0. 때가 된 후에 말하자

잠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잠15: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25: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잠27: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다 들어 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집회서 11:8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 말며 남의 얘기를 가로막지도 말아라.

잠29: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상대방과 충분한 관계 형성이 되기 전에는 논쟁이나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설사 주장하는 바가 옳다해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반발만 사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와 질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에서 「때」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11. 말을 아끼자.

잠17:27~28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⁶⁰⁾

전5:3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잠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4: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전5: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잠18: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12:23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11:12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60) 대조) 잠16:30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12. 우는 소리 하지 말자

도움을 요청할 때는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 살펴서 적절한 때와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비굴한 태도나 아첨하는 소리로 구하지 말고, 궁상맞게 우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더라도 그 마음이 함께하지 않고 멸시하거나 행세하려 들 것입니다. 구차스러울 뿐입니다.

잠18:23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 하느니라.

잠19:7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주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소서.” 50쪽 이하 참조

이 믿음으로 정중히 설명하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13. 성내지 말자

약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시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엡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잠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19:11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15: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12:16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마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14. 원망, 불평

빌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전7: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시37:1,7~8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⁶¹⁾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고전10:10~11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⁶²⁾

61) 너는 행악자의 득의得意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 24:19~20

62)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이같이 원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렘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5. 부드럽게

비록 소신이 분명할지라도 그 생각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잠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25: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12: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과격한 말은 비수 같아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온유한 말은 양약 같아서 상한 마음을 고쳐 줍니다.

갈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딤후2:24~26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16. 기타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5:3~4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잠26:18~19 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농담도못하냐?”)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잠4: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잠17:7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딤후2:16~17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약3:8~10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골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전14:1~5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제 입에 말씀을 주시되, 듣는 이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지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17. 말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마12: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18:20~21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12:31~3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1) 말에 대해 자만하지 말자

약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3:7~8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2)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자

시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30:7~8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시19: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재원

1.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실 분이요, 일꾼이 그 샅을 받음이 마땅하다 하신 분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후9: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마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딤후5: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샅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후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2. 사회사업가의 기업

신10:9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시니라.

민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나누어 주어 그로써 기업業을 삼게 하셨으나, 성전 일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열한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회사업가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쳐먹을 땅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니 말입니다.

사회사업 직분을 행할 때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어 모든 쓸 것 먹을 것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맡기신 여호와,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쓸 것 아시고 채워 주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3. 여호와 이레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채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 여호와와의 사자가 제지했습니다. “그아 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창세기 22:14

사회사업에 쓸 것 또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

4. 사회사업 기금

잠13: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썩이느니라.

전2:26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모아 쌓는 일)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잠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사회사업을 꿈꾸는 데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회사업을 해야 할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사회사업 재원이 이런 재물이었는지는 모르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언제나 쓸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때를 따라 알맞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포로생활을 하던 유다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읍을 복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⁶³⁾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행에 쓸 것과,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성읍을 복구하는 데 쓸 것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누가 부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그 이웃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게 하였고,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하여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금·은 그릇들을 돌려주며 예루살렘 성전 원래 있던 자리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라 1장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63)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부왕국 이스라엘과 남부왕국 유다로 나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앗수르(앗시리아)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고(왕하17장), 남쪽 유다는 바벨론(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왕하25장) 바벨론을 이어 바사(페르시아)의 통치까지 칠십년동안 포로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 때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일부 귀환하고, 이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따라 귀환합니다.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단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적들(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방해공작을 하여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다리오 왕 2년에 스톱바벨(1차 귀환 지도자, 유대 총독)과 예수아(대제사장)가 성전 재건에 다시 착수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도왔습니다. 이 때 다리오 왕이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스6:6~9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리하여 다리오 왕 6년에 완공했습니다.

이 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64) 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의 지도로 제2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쓸 것들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스7:12~20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64) 다리오 왕 이전에 칙령을 내려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왕의 이름도 아닥사스다입니다.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느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또 강 서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관원과 총독들이 도와 주었습니다.

이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 주께 기도하고 왕의 도움을 요청하니 이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중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느2:7~8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처럼 애굽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열 번째 재앙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는데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 같은 애굽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 등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으니 말입니다.

출12:35~36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5. 재원의 정당성

잠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는 카지노, 복권, 경마, 술, 담배, 고리대금으로 모은 돈을 사회사업에 쓰는 걸 정당화하는 말씀일까요?

① 죄인의 재물을 수용한 사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호와와 그의 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성을 중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탈취하고 착취해서 쌓은 재물을 받아서 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여자가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행동을 예수님께서서는 받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 몇 사람이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사례들을 보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 하여 사회사업에 쓸 수 없다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② 죄인의 재물을 거부한 사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람 왕 등 네 왕과 소돔 왕 등 다섯 왕, 이렇게 4대 5로 싸워 엘람 왕 편이 이겼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살던 롯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사병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가 엘람 왕 등을 쳐서 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할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였습니다.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빼앗아온 물품입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그 많은 물품을 가져다가 좋은 데 쓰지 왜 거절했을까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창13:13

죄인의 재물이라서...

③ 수용?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잠28:8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읽으니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이런 재물을 주신다’는 뜻보다,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헛된 것이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 쌓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뜻이 더 와 닿습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불의한 축재를 경계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렘17: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여전히,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금이 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금이니 사회사업가가 갖다 쓰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④ 거부?

다시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재원, 후원금의 출처를 캐묻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돈인 줄 알면서 받아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⁶⁵⁾

신23:18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잠23:6~7 약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65) 고전10:25~28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당시에는 우상의 제사에 쓴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으므로, 그런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제물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고 사려는 신자들이 있었나봅니다.

⑤ 기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사회사업에 써도 되는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사회사업에 쓰면 나쁜가?

나쁘지 않으면 받아도 된다, 죄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는 소극적 판단입니다.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편이 더 좋은가?”
하는 적극적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죄나 아니냐 하는 소극적 기준으로 면피 또는 합리화하는 건 구차합
니다. 더 좋은 가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
는 편을 선택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귀합니다.⁶⁶⁾

참고 : 142쪽 「다른 가치, 더 큰 가치」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음주·흡연해도 되는가?

66) 그렇다고 곧 이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차원의 선택 기준이 있음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 재원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꺼립니다. 공짜 지원이 미칠 부정적 영향 때
문에 꺼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하
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가급적 받지 않으려 합니다. 더 좋은 편이 있기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하면, 도박·술·담배·경마·복권·고리대
금 사업의 수익금에까지 손 벌릴 일은 없으니까요.

물질

1.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자

히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롬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십니다.

가진 게 없고 급료도 적은 사람이 있으니 남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사회복지사로서는 족한 줄로 알 만합니다.

눅3:14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 족한 줄 모르는 것들

잠30:15~16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2) 자족하는 마음

딤후6:6~8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빌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옘은 모든 소유물과 종들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옘1:21

2. 물질에 마음 두지 말자

잠23:4~5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부자 되려는 생각)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재물)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27:24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먼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딤후6:17~18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잠30:8~9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자.

합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 물질이냐, 누리게 하시는 분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후 6:4~10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잡으면 말단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그 자체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딤후6:17

시23: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2) 물질보다 귀한 것

잠15:16~17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17: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4: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3. 소유의 폐단

전5: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전5: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13: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험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전5: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전6:1~2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5:15~16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시49:10~11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시49:16~17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

위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다.

집회서 11:18~19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치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이제 편안히 쉬며 내 재산으로 잘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그는 모르고 있다. 그는 자기 재산을 결국 남에게 남겨놓고 죽어갈 것이다.

전5: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딤후6:9~12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19:2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4. 청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신15:11) 우리 곁 우리 대문 앞에는 언제나 나사로가 있을 텐데, 부를 쌓아두고 누림이 가당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라 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일하는 사회사업가에게 부는, 그 청탁에 상관없이, 편치 않습니다.

신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눅16:19~2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눅18:22~25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5. 저축

내일 일을 위하여 저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6:31~34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저축해 두면 안전할까요?

눅12:16~21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른 말씀

잠6:6~8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고후12:14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문맥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아이 같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부모처럼 기쁘게 재물을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긍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흉년에 대비하여 곡물을 저축한 이야기, 노아가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저축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소산의 십분의 일을 성읍에 저축한 이야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물건을 저축한 이야기...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이루려고 저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6. 흉년 대비책

전11:1~2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41:1~2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렘17:7~8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1:3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15:4~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복

1. 복, 복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이 화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면 불행도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행복도 재앙입니다.

도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는 참 복지입니다.

도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는 반 복지입니다.

시73:28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행하며 부귀와 명예를 부족함 없이 누리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헛될 뿐입니다.

2. 행복

하필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을 따름입니다.

사람의 도리,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목표, 이를 위해 때로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분개하고, 때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오해·비난·질시·핍박·가난·외로움에 시달리고,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만 뜻을 좇아 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을 좇아 사는 게 인생이요,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 이상뿐 아니라 원칙과 방법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 되어도 괜찮습니다. 행복해도 좋고 불행해도 좋습니다.

사는 동안 감사하고 죽을 때도 감사합니다.

부유할 때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병약할 때도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행복할 때 감사하고 불행할 때도 감사합니다.

소원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욕심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심과 해맑은 웃음으로
때문고 코 묻어도 마냥 좋은 털털이이고 싶습니다.

땀흘려 일하고 달게 자는 것으로 행복해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아는 빈자이고 싶습니다.

떼어 주고 뽑아 주고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섬기기만 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머슴이고 싶습니다.

유언

장기와 시신은 약속한 곳에 기증하고 1588-1589
부고도 장례도 하지 말고, 묘비 등 어떤 표지도 남기지 마십시오

유품은 필요한 곳에 주거나 없애 주십시오.

아들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지내되 선한 사업에 힘쓰자.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자.
소득이 없고 되는 일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좋은 복이니,
무엇보다 이 복을 사모하고 누리자.

교회사회사업

1. 개념

성경에서 사회사업에 가까운 내용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 주는 것, 이웃사랑, 구제, 봉사, 선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주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 기구나 인력을 따로 두고 직접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을 잘 돕도록 주선하는 일이기도 하고 따로 맡아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회사업 :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주선하거나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즉, 기독교 사회사업은 기독교 신앙으로 행하는 사회사업입니다. 대상은 불특정 약자이며 이는 일반 사회사업의 대상과 같습니다.

교회 사회사업 : 교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주선하거나 교회가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교회 사회사업은 기독교 사회사업의 일부입니다. 대상은 교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과, 교회나 교인 주변의 어려운 이웃입니다.

2.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만 이라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음은, 사람이 만든 규범 즉 교회의 규칙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막7:9~13

이와 같이 마땅히 어려운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교회에 바치게 함으로써, 교회 일을 위하여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재물을 바치고 교회 일로 봉사하고 나면 자신의 일상이나 직업에서 세상을 섬길 물질·시간이 있을까요? 세상은커녕 가족·친지조차 돌볼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만 빛나고 맛납니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칭찬 받는데 교인들의 생활은 칭찬할 만한 모습을 잃어갑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는데, 그 빛을 교회라는 말 아래 덮어두고 그 소금을 교회라는 향아리에 담아두니, 세상은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갑니다.

교회의 「구제사업」 만들기보다 교인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생활 속에서 돕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공간과 자원과 인력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교인을 직접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 일이 더욱 본질적인 교회사회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착한 일을 가져다가 교회가 혹은 교회가 이름으로 대신 해 주기보다는, 교인들의 일상과 직업 속에서 잘 꽃피우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2006. 6. 19

3. 외인에게 짐 지우지 말자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장애인이 예배하기 위하여 멀리 장애인교회나 선교단체에 다니고 있습니까?

복지기관이 우리 교인에게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까? 봉사자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무료 이·미용 또는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후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말벗 서비스나 안부확인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하셨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가 짐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어려운 교인이 있거든 교회가 도와 주고 외인으로 짐 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지기관에 맡겨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단순한 도움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지시설에 단체로 찾아가서 하는 봉사, 교회가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봉사, 지역주민을 교회에 초청하여 벌이는 각종 행사 등 각종 대외 봉사도 유익하지만, 먼저 교인 중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제 교인의 일로써 외인에게 짐 지우는 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4. 교회 사회사업가의 역할

① 접수합니다.

창구를 만듭니다. 전화나 메일이나 사무실이나 우편함 같은 상자 등 편안하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알립니다. 주보나 포스터나 사회자 광고 등으로 꾸준히 알립니다.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에게 물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②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당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책임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감당키 어려우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복지 기관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력이 되고 교회가 허락하면, 교회 주변이나 교인들의 이웃 중에서 교인이 아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③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어려운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알아도 돕겠다고 선뜻 나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기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이 감당하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떠맡게 될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 받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교인에게 신세 지는 것, 봉사 대상자가 되는 걸 꺼릴 수도 있습니다.

주선하고 거들어 주어야 합니다.

돕는 일이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돕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회사업가가 맡아서 주관하고 주선하고 거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도록, 일방적으로 도움으로 당사자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대상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피서 꾸준히 주선해야 합니다.

④ 장애인을 돕습니다.

장애인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이 예배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장애인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우미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프로그램, 교구·교재, 점역·수화통역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장애아동 주일학교나 장애인 부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의 지역 모임을 위해 공간을 주선하고, 교인에게 차량 운행이나 음식 대접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